

정 / 책 / 뉴 / 스

정통부, 대형 SW개발 연구과제 2개 선정

정보통신부는 SW개발지원 대규모 사업인 SW플래그십 프로젝트에 'T-50 고등훈련기에 탑재되는 컴퓨터시스템'과 '차세대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인터넷 서버' 개발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개최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를 통해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SW플래그십 프로젝트란 정통부가 SW분야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성공적인 모범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해 온 대형 연구개발과제로, 과제당 최대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다.

이번에 선정된 항공분야 과제는 지난해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같은 항공기의 두뇌와 신경에 해당하는 핵심시스템인 주컴퓨터(작전수행을 위해 항공기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컴퓨터)와 무장관리컴퓨터(무기 사용을 제어하는 컴퓨터)의 기술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울러 공군에서 이번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험비행에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 정비시설 등 약 300억 원 규모 현물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외에 인터넷 분야에서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를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공개SW 기반의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을 개발 프로젝트도 선정됐다.

향후 두 과제에 대한 최종 제안요청서를 완성해 2007년 1월 초 공고하고, 2월 중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계약서 교부'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계 CEO,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에 대해 논의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고비용 구조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기존가입자를 유지해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경쟁양상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통신망품질 개선 및 이용자 가치 제고 등 서비스의 질적인 재도약을 위해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통부, 올해 IT839 기술개발에

4673억 투입

정보통신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 및 신성장 동력 개발에 올해 4673억 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8일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주관으로 유영환 차관을 비롯해 관계 분부장관과 연구기관장, 분야별 프로젝트 매니저(P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3번째로 IT839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07년 IT839 등 신성장 동력 산업 개발에 467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RFID/USN를 비롯한 시장규모와 타산업 파급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반면, 광대역통합망(BcN)과 홈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축소키로 했다.

또 2010년 이후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대비한 51개의 신규 과제에도 112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방 전술이동통신망의 고도화를 위한 와이브로의 국방적용 기술과 동식물·골물·괴물 등과 같이 상상 속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디지털 생명체 기술, 전용안경이 없이도 3D 방송을 볼 수 있는 3차원 DMB 기술, 휴대단말의 입출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션 입출력 기술, 항공기용 임베디드 SW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도전적인 과제도 추진키로 했다.